

Sol SUP

신입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



81명의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이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Sol SUP(Start Up Program)을 진행하였다. Sol SUP은 신입생들이 입학한 이후 대학의 새로운 학습 환경에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8일간 총 30시간 진행된 Sol SUP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를 둘러 보는 시간을 가지고 학과 조교와 2학년 멘토 학생들을 통해 학과에 대해 질문을 받고 설명해 주는 시간을 포함하여 리더십, 창의성, 학습법, 글로벌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에 참여하였다.

김의현 기자 / 사진 출처 : 김영빈 학생

미국 간호사의 첫 단계

'NCLEX-RN (미국간호사 면허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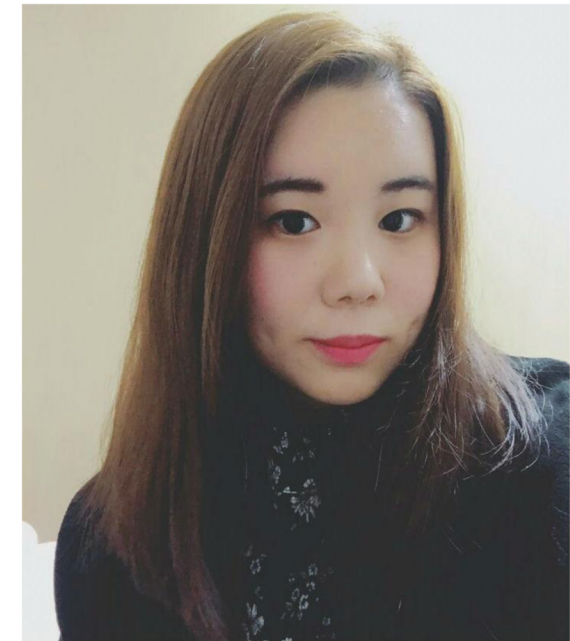


미국 간호사 면허증(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 NCLEX-RN)을 취득한 졸업생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 최원희 학생이, 2017년 3월에는 박진영, 최예원 학생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2017년을 기준으로 총 13명의 졸업생이 면허증 취득에 성공하였다. 미국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간호사는 미국의 공식 간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부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면허증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험에 합격해야 간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5기 졸업생 박진영, 최예원 학생은 Fairmont 미국 주립 대학교에서 'two plus two'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대학교 학위를 이수한 학생들로 안정섭, 최우원 학생이래로 3번째로 미국간호사 면허증에 합격한 사례이기에 큰 의의가 있다.

이호은 기자 / 사진 출처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홈페이지

우송 간호의 새로운 씨앗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 인터뷰



2017년 3월 2일, 드디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7학번 신입생들이 입학했습니다. 이번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의 소감을 들어보기 위해 1학년 전예나 학생을 만나보았습니다.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A. 대학교라고 하면 선배들이 후배들의 군기를 잡는 딱딱한 모습을 상상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언니들도 모두 잘해주셔서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Q.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A. 외국인 교수님의 수업들은 아직은 알아듣기 힘들지만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니 영어능력이 향상되는 느낌이고, 교수님께서도 딱딱하지 않으시고 저희와 친해지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고남의 기자 / 사진 출처 : 전예나 학생

어디로 간호? 같이 간호!

간호학과 MT



2017년 3월 17일 우송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간호학과 M.T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었다. 위 행사는 학과 내 학생들과 지도교수 간의 단합을 유도하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친목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체육대회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융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 학년이 모두 모여 각 팀의 지도 교수와 외국인 교수님과 함께 힘을 모아 '신발 양궁 대회', 'O, X 퀴즈', '협동 공 튀기기', '2인 3각 달리기'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중간에 제공된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기 초임에도 바쁜 학과 생활로 인해 전 학년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흔치 않은 때에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서로 많이 알아가고 단합하며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남의 기자 / 사진 : 이호은

2017 학년도 우송간호 신임교수

강석정 교수 인터뷰



2017년 봄의 계절과 함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교수가 새로이 들어왔다. 새로운 환경에서 첫 교수생활을 시작하게 된 강석정 교수의 앞으로의 포부와 역할기대를 알아보려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14년 7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 중앙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퇴사 후에는 모교에서 간호대학 학생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자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새내기입니다.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학구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학과 공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학생들은 각자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교수님들은 열정적이고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끼며, 학생들도 교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선후배 사이의 돈독함도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이 분위기가 쪽 이어져 저도 더불어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과목과 앞으로의 역할기대

A 올해 1학기에는 4학년 학생 실습지도 및 '시뮬레이션' 과목과 1학년 '간호철학과역사' 과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내적 역량을 강화하여 실제 현장에서 행복한 간호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지해 주는 교육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나요?

A 4년간의 교육과정을 잘 마친 후 간호인이 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너무 주눅들거나 자만하지 말고, 함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간호학과 특성상 다른 학과에 비해 대학생활의 여유가 없는 편이지만, 나름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며 현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호은 기자/ 사진출처 : 강석정 교수님

Sol-Fun! Fun! Fun!

우송간호 전체학년 미팅



3월 15일 W1 우송도서관 강당에서 우송간호의 설레는 새 학기를 알리는 전체미팅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힘찬 Welcoming 박수로 입장하는 1학년 새내기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학과장님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교수님들과 2017년도 학생회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어 학과의 행사일정, 기숙사 규칙 소개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도모하였으며 끝론 'Sol Challenge', '일본 연수 팀'의 활동보고가 이어졌다. 1학년 백지원 학생은 "처음으로 모든 간호학과 교수님, 동기, 선배들과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고 우송가족의 일원으로 활기차고 성실한 대학생활을 임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선배들의 외국연수활동 발표를 듣고 난 후 저도 얼른 기회를 얻어 학과의 다양한 국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진윤정 기자 / 사진 : 김의현